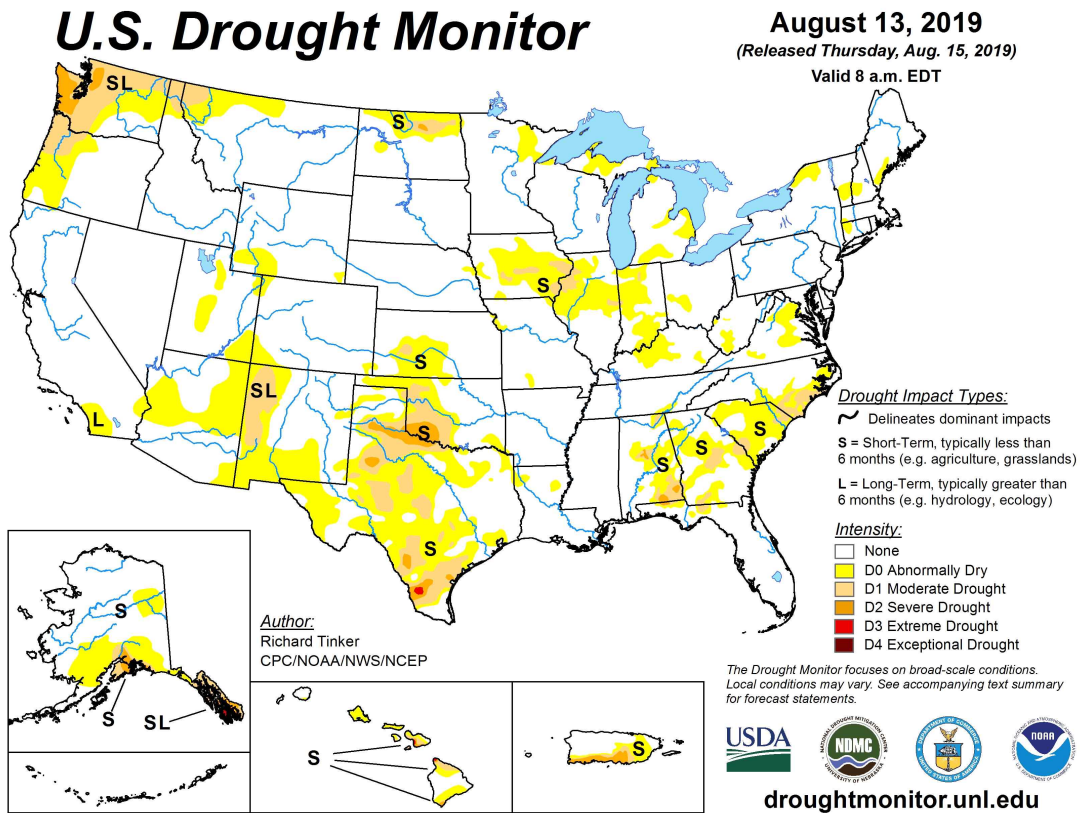


8월 2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73)

□ 미국 기후 현황(8/11~8/17)

평년에 근접했거나 또는 평년보다 낮은 온도가 미국의 북부 절반을 덮었지만 남부는 늦여름 폭염으로 익었다. 주간 온도 범위를 보면 평년의 북쪽 부분은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낮았는데 반하여 남쪽 지역 특히, 사막 남서부에서부터 평원 남부까지는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남부 전체가, 멕시코만 동부와 대서양 남부 연안 주변을 제외하고, 강렬한 폭염을 동반한 대체로 건조한 날씨였다. 지역적으로 주간 총 강우량이 4인치 이상 비가 내렸던 곳들에서는 야외 작업이 지연되었고 급작스러운 홍수가 일어났다. 강우가 내린 또 다른 곳은 평원 북부와 중부에서부터 중서부까지였다. 총강수량이 가장 높았던 곳들 가운데 몇 곳은 - 지역적으로 2-4 인치 - 평원 중부에서부터 중앙 옥수수 벨트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몇 지점에서 비가 과도하게 내리기는 했지만 강우는 대체로 초지와 종실비대 중인 여름 작물에게 유익했다.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날씨가 건조했는데 남중부 미국과 서부의 많은 곳들은 건조했다. 고원 남부에서는 단기 건조와 3주 연속 계속되고 있는 아주 심한 폭염으로 방목지, 초지, 천수답 여름 작물은 계속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미국 서부에서는, 북서부 농민들이 소곡류를 빠르게 수확할 수 있기는 했지만, 단기 건조가 증폭되었다.



### □ 농업 현황 요약(8/12~8/18)

일리노이, 캔사스, 미조리, 남동부 일부에서 비가 가장 심하게 내렸는데 어떤 곳들은 3인치 이상 내렸다. 캘리포니아, 델타, 남동부, 뉴멕시코, 텍사스 일부에서는 온도가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반면 로키산맥 북부와 평원 북부 일부는 온도가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았다.

### □ 세계 기후 현황(8/11~8/17)

■ 유럽: 중유럽과 북유럽 전역에 소나기가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내리고 있었다. 다만, 일부 겨울 작물 지역이 여전히 불리한 건조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남프랑스에서부터 동쪽으로 남폴란드까지 이 기간 동안 내린 총강수량은 10-60 mm였고 북유럽의 많은 곳에도 중간-강한 소나기 (10-45 mm)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이 비가 특히 북프랑스의 주요 밀/유채 재배지역에서는 단비였는데 이곳은 다양한 수준의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밀과 유채를 파종하기에 토양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프랑스와 서폴란드 둘 다 지역적으로는 여름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비가 더 와야 할 것이다. 중부와 남부 스페인에도 가뭄은 아주 고착화되어 있어서 여름 작물의 종실 비대를 위해서는 관수 수요가 여전히 높고 다가오는 겨울 곡류 파종에 앞서서 수분 필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동쪽으로 이탈리아와 발칸 전체는 이 기간 초반에 건조하고 더운 날씨 (35-38° C)가 여름 작물의 성숙과 건조에 유리했다. 다만, 주말에는 날씨가 좀더 시원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 (1-2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되어 이른 겨울 작물 파종에 필요한 수분 공급량을 유리하게 유지해주었다.

■ 구소련(서부): 이 기간 초반에는 건조하고 더운 날씨였으나 주말에는 시원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로 바뀌었다. 이 주간의 많은 날 동안 화창했던 하늘과 더운 낮 시간 온도 (섭씨 30도 대 아래~중간)가 종실비대 또는 성숙중인 옥수수, 해바라기, 콩에게 유리했다. 이번 주 후반 동안 강한 한랭 전선 때문에 날씨가 쌀쌀하고 불안정해져서 남서러시아에 가장 강한 비 (10-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으나 흑해 서부 지역은 거의 그냥 지나갔다. 구소련 지역은 전체적으로 여름 작물의 수확량 전망이 좋음~우수이다. 한편, 다가오는 9월에 겨울밀 파종에 필요한 수분 공급량은 여전히 좋았다.

■ 동아시아: 태풍 레키마의 잔여 세력은 산둥에서 흑룡강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 경로를 따라 강한 소나기를 뿌렸다. 산둥과 인근에서는 잔여 세력의 경로 근처에서 총강수량이 25 mm와 100 mm 이상이어서 다양한 수준의 계절 가뭄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에 필요한 수분을 많이 공급해주고 있었다. 레키마의 잔여 세력 뒤로 동해를 통과해 지나간 태풍 크로사의 잔여 세력이 빠르게 따라오면서 총강수량 100 mm 이상의 소나기가 북동쪽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었다. 북동부의 전체 수분량은 흑룡강과 길림에서 생식성장 중인 옥수수와 콩에게 우수한 조건을 유지해주었고 랴오닝에서는 작물에 대한 계절 수분 결핍을 없애주고 있었다. 중국의 나머지 지역은 뜨겁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기록되어 벼와 기타 여름 작물에게 필요한 관수 수요를 올리고 있었고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지역 작물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었다. 기타 다른 지역을 보면 남일본과 한반도에서는 크로사 때문에 심한 강우가 내려서 한반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되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젖는 비 (15-30 mm 또는 그 이상)가 밀 벨트의 많은 곳에 내려서 영양성장 중인 겨울 곡류와 유지 작물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올려주는 단비가 되었다. 작물들이 생식 단계에 도달한 서부에서 수확량 전망은 계속 좋았다. 남동호주에서는 가벼운 소나기 (대체로 5 mm 이하)가 밀 벨트에 널리 산발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영양 성장 중인



겨울 작물에게 수분을 거의 더해주지 못했다. 맑은 날씨와 적당한 토양 수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남호주와 빅토리아에서는 밀, 보리, 캐놀라의 발달을 촉진했지만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에서는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비가 더 내려야 한다. 먼 북쪽으로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소나기 (1-3 mm)가 일부에만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가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작물이 생식기에 들어가면서 밀의 전망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젖는 비가 내리면 겨울 작물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재배 초기부터 날씨가 얼마나 건조했는지를 감안하면 가져다주는 어떤 유익도 미미한 상태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젖는 비가 내렸더라면 목화, 수수, 기타 여름 작물을 파종하기에 앞서서 표토의 조건을 맞추고 저수지를 충전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여름 작물에게는 더 유익했을 것이다. 밀 벨트는 전체적으로 평균 온도가 평년 근처였다 (평년 대비 1° C 이내).

■ 아르헨티나: 이 지역은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겨울 곡류의 영양 성장을 지체시키고 있었다. 중부와 북부의 주요 농업 지대에서는 강우가 거의 기록되지 않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고립된 가벼운 소나기 (1-10 mm)가 드문드문 내렸을 뿐이었다. 주간 평균 온도는 평년보다 최대 2° C 낮아서 밤 최저 온도는 코르도바 북부 같이 먼 북쪽에서는 -5° C까지 떨어졌다. 북동부의 많은 곳은 전체적으로 온도가 결빙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지만 포르모사 같은 먼 북쪽에서는 최저 온도가 5° C로 떨어졌다. 최고 온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섭씨 10도 대 상위에서부터 먼 북쪽에서는 30도 대 하위 및 중반에 걸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과 목화 수확은 8월 15일 현재 각각 95와 97 퍼센트였고 밀과 보리의 파종은 100 퍼센트 완결되었다.

■ 브라질: 계절적인 따뜻함과 건조가 중앙 브라질에서 목화 수확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마토 그로소에서부터 동쪽으로 북동부 내륙을 지나기까지 (토칸틴스, 서바히아 및 인근), 남쪽으로 파라나를 지나기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건조 조건도 동쪽으로 상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까지 뻗어나가 지난주 드문드문 소나기가 내린 이후의 사탕수수과 커피의 수확 조건을 개선해주었다. 가벼운 소나기 (5-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때문에 리오그란데 도 술에서는 밀이 불리하게 젖어 있었지만 젖은 양은 최근 몇 주보다는 낮아졌다. 주간 평균 온도는 평년의 2° C 내외였는데 중부와 북동부 내륙의 많은 곳들에서 낮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대 중반~상위에 도달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도 대 상위에서부터 30도 대 하위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리오그란데 도 술의 밤 최저 온도는 영하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영상을 유지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8월 16일 현재, 옥수수 수확이 완결되었고 목화는 65% 수확되어 5년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8월 12일 현재, 87% 수확되었는데 나머지는 거의 모두 성숙기에 도달했다. 밀은 75% 이상이 개화기에 도달했고 작물의 17%가 성숙에 도달했다. 한편, 계절적인 비 (10-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북동부 해안을 따라 계속 내려서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에게 필요한 수분 비축량을 올려주고 있었다.